

# ◀ 韓國의 電氣事業과 偉人 CISLER ▶

Korea Electric Energy Business  
and Mr. Welker L. Cisler

金 善 集

東洋物產企業(株)會長  
前韓國電力(株)專務理事

世界에 너지會議 (World Energy Conference)의 議決 및 執行機構인 國際執行理事會 (IEC)의 '87 서울總會가 9月 14日부터 開催되어 IEC名譽會長 Walker L. Cisler 氏 (美國人)가 90세의 高齡임에도 불구하고 Detroit로부터 單身으로 直行 飛來하였다. 이번 會議에 참가한 人士들中에 최고령이었는데 이번 旅行이 그의 48번째 太平洋 橫斷旅行의 記錄이라고 한다 (大西洋 橫斷旅行記錄은 371회라고 한다).

90세 고령의 Cisler 博士의 訪韓을 祝賀 歡迎하는 뜻에서 韓國의 電氣事業發展과 直接 관계되는 Cisler 先生의 秘話를 소개하고 아울러 그 분 생애의 중요한 업적과 人間性을 披露하기로 한다.

## 1. 韓國의 電氣事業과 關聯된 秘話

• 韓國이 1969年 WEC의 會員國이 된 經緯부터 說明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Cisler 先生은 自發的으로 韓國과 台灣을 WEC의 會員國으로 만들기 위해 소련에 對한 訂立活動을 끈질기게 계획했던 것이다. Cisler 先生과 個人的 親分이 比較的 두터웠던 소련의 에너지長官 네포로스니 (D. S. Neporoahny)를 3年間 說得한 幕後交涉이 奏效하여 소련側이 韓國加入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도 北韓의 事前加入申請을 제

쳐 놓고 韓國의 加入을 먼저 議決하였던 것이다. 台灣은 9年 交涉後에 會員國이 되었는데 이 秘話를 이야기하는 先生의 얼굴에는 약간 輿奮의 氣色이 보였다.

• 1948年 5月 14日 北韓이 10萬kW의 對南送電을 一方으로 突然 中斷하여 우리의 電氣事情이 極度로 난처했을 때 Cisler 先生이 韓國의 電力難을 解決해 주는 重要人士로 등장하여 積極的으로 協力해 주셨다. 이때부터 先生이 韓國과의 인연을 깊게 가지기 시작했다. 斷電直後 美國政府가 發電艦 (Impedance號와 Jacona號와 Electra號)을 韓國에 急派하게 된 것도 先生의 建議에 따라 實行되었던 것이다.

• 1956年 11月 李承晚大統領을 官邸로 禮訪한 Cisler 先生이 손수 美國으로부터 持參한 Energy Box (核燃料와 其他 化石燃料의 所要量을 比較하는 見本이 들어 있는 상자, 20cm × 20cm × 25cm)를 展示하며 核燃料의 優位性을 說明하면서 韓國의 原子力發電所建設을 勸告한 일이 있다. 그때 大統領이 「韓國은 언제쯤 原子力發電을 할 수 있을까?」 물었는데, 즉시 「20年後가 될 겁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對答 속의 20年이라는 세월은 무척 먼 앞날의 일로 느껴졌을 것 이지만 韓國의 최초 原子力發電所인 古里 1號機가 1977年 運轉開始한 記錄을 보면 原子力의 大家이신 Cisler 先生의豫言이 정확하게 的中한



▲사진 左 筆者, 右 Cisler 氏

것을 알 수 있다.

• 6·25 事變後 美國 政府의 韓國戰災 復旧計劃이樹立되면서 美國政府는 Cisler氏에게 電力專門家 팀을構成하고 戰災로 파괴된 電力系統의 복구를 위한 全面的調査實施를 委嘱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復旧工事도 직접 지휘하였으며 解放後 韓國에서 처음建設한 重油·石炭(國產無煙炭)混燒火力發電所 10萬kW(唐人里, 馬山, 三陟)가 1956年부터 發電開始한 것도 이분의 因緣이 多大하다.

우리 政府의 外貨 保有高가 極少했던 그 당시 AID 援助資金으로 發電所를 건설하게 된 것은 참으로 그 분의 영향력이 커던 것이다.

• 國際親善을 위해서는 相互人事交流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는信念이 굳은 Cisler先生은 韓國과의 관계가 定立되자 朝鮮電業, 京電, 南電의 技術者 132名을 Detroit Edison會社에 초청하여 自己會社 設備를 利用한 現場教育訓練을 해주었다. Detroit Edison의 社長이신先生(主로 1950年代 後半期)은 自己會社 職員들을 韓國에 파견하여 先進國水準의 電力設備 運用技術을指導해 주셨던 것이다.

• 1970年 4月 政府 科學技術處, 大韓電氣協會, 美國에디슨財團(理事長 Cisler氏)이 共同으

로 「電氣의 날」行事를 개최했을 때 韓國政府는 Cisler先生에게 그간의 功勞를 높이 평가하고 金塔產業勳章을 授與한바 있다.

• 에디슨財團 이사장 資格으로 訪韓한 Cisler 선생이 訪韓紀念으로 金一封을 大韓電氣協會에 寄贈한 것이 Edison獎學制度를 開設하게 된 動機가 된 事實도 기억할만한 일이다.

## 2. 美國內活動 特히 原子力產業開發

• Cisler先生은 美國 電氣事業界에 50年以上 봉사한 最長老 權威者로서 原子力開發의 先驅者로서 또 產業界의 지도자로서 美國의 에너지政策樹立에 지금도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人物이다. 누구보다 平和와 人類를 사랑하며 남을 도와주기 위해 살고 있는 그는 모든 人類의 친구 立場에서 일하고 있다.

• 美國 고넬(Cornell)大學에서 機械工學을 전공한 선생은 世界 1, 2次大戰에 두번 다 參戰한 용사이며 2次大戰中에 政府 軍需生産廳에 근무한 일도 있다(美陸軍 軍番 0150193).

大戰從軍 當時 목에 걸고 있던 軍人名札을 90

세의 老軀 목에 지금도 항상 걸고 다니는 先生의 老頤에는 그 당시를 늘 回憶하면서 世界의 平和를 祈願하는 모습이 역역히 엿보였다.

• Cisler先生은 合衆國政府의 原子力擔當 顧問을 역임하고 또 原子力產業會議의 初代會長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先生이 Detroit Edison의 社長, 會長의 重責을 25年間 계속하면서 原子力이 장차 Energy源의 主宗이 될 것을 항상 預言, 確信하여 原子力開發에 대한 노력을 傾注한 業績이 있다.

• 原子力의 平和的利用에 관한 先覺者인 先生은 이제부터 50年後는 増殖爐가 原子力 에너지의 中心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増殖爐의 조속한 開發을 關係 要路에 촉구하였다. 이 主張을 立證하기 위해 나트륨 冷却高速增殖爐의 實證爐를 建設하여 1963年 8月 23日 Enrico Fermi原子力發電所가 成功的으로 運轉을 開始하여 増殖爐의 開拓者임을 國内外에 유감 없이 立證 發表하였다.

• 더우기 Eisenhower大統領은 原子力開發을 國제적으로 奬勵하는 民間團體인 「原子力平和利用 開發基金」의 理事長에 Cisler氏를 임명하였다.

• 先生이 軍需生產廳에 근무할 때부터 原子力을 工夫할 動機가 생겼고 특히 1947年 發足한 產業獎勵部長官(政府機關)에 就任하여 國內產業界에 산업장려 그룹을 結成하여 더욱 加速化되었다. 이리하여 1946年の「麥馬흔法」(美國最初의 原子力法)制定의 母胎가 되고 其後 原子力法이 1954年 制定되고 그 이름해 原子力計劃이 처음 策定되었던 것이다.

上記한 바와 같이 先生은 Detroit Edison의 最高經營者의 重責을 遂行하는 한편 政府의 諮問要請에 報答하여 40余年間 美國政府機關과 긴밀하게 各種 에너지 事業을 추진하여 왔다.

### 3. 國際的活動

兩次 世界大戰으로 因하여 무참하게 파괴된 구

라파 諸國의 廢墟를 두번이나 目擊한 선생은 平和와 人類愛에 對한 人生觀이 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先生은 가슴속 깊이 다음 말을 맹서하고 되새기며 살고 계시다고 한다.

「보다 平和로운 世界를 建設하기 위해 自己의 知識과 能力を 機會있는 대로 다 바치겠노라」

Eisenhower元師 麾下의 歐羅巴戰線 聯合國派遣軍 最高 司令部(SHAFF)의 公益事業局長으로 在任했던 關係로 구라파 諸國에는 友誼 親分이 두터운 指導層이 많이 있었다.

先生의 고매한 精神과 偉德性品이 널리 國内外에 알려져 있어 錦上添花格이 되어 美國政府가 2次大戰後 先生을 平和特使로 구라파에 特派하였던 것이다.

• 第2次 大戰 終戰後 구라파 經濟復興을 위한 Marshall Plan을 美國政府가樹立하여 實踐段階에 들어갔을 때 Marshall將軍이 Cisler氏에게 事業執行의 重責을 委任하였다. 그리하여 구라파 8개국을 順次로 訪問하여 戰災로 파괴된 電力系統의 복구, 電力事業의 再編成 그리고 電力關係人士의 交流計劃을 적극적으로 支援하였다.

• Trueman大統領의 四點計劃(Four Point Plan: 구라파 이외의 國家를 대상으로 하는 Marshall Plan에 대응하는 것)에도 先生은 깊숙히 關與하였다.

• 1960年代에 美國政府가 開發途上國을 援助한 AID計劃에도 先生이 參여하여 韓國, 台灣, 印度, 이란, 터키, 越南等을 포함한 여러 나의 電力調查와 經濟問題研究를 實施하는 各 Project를 直接 指揮하였다.

韓國의 電力調查를 위해 1964年 AID 本部가 J. B. Thomas氏(前 Texas Edison社長)一行을 無償 援助資金으로 韓國에 파견한 것이 바로 이에 屬하는 일이었다. 이 調查團이 作成, 報告한 所謂 Thomas Report는 外國人 電力専問家가 作成한 最初의 長期電源開發 計劃書이다.

• 政治体制, 理念 및 意識들을 달리하고 있는 外國을 援助해 주면 自然히 이들 異邦人们 사이에 美國의 實質을 理解시킬 수 있고 나아가 世界平和를 確立할 수 있을 것이라는 希望과 사명감을 갖고 國際協力を 해왔던 것이다.

#### 4. Cisler氏의 生活觀과 語錄

남을 도와주기 위해 사는 人間이 되겠다는 理念으로 平生을 살아오신 선생의 偉德이 우리 後進들에게 남겨 주시는 教訓을 그 분의 謙虛하고 자랑하지 않는 性品과 高邁한 德性과 人格 속에서 찾아볼까 한다.

그분의 생활관과 語錄들이 잘 表現해 준다.

• 모든 사람은 누구나 가장 값지고 가장 消滅하기 쉬운 資源 寶物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각자가 갖고 있는 時間이다.

• 이 世上을 보다 좋고 더욱 平和스러운 場所로 만들기 위해 時間을 아껴 分單位로 분주하게 일하자.

• 1分을 60秒의 價值있는 疾走로 빠 차게 하려는 뜨거운 情熱이 나를 재촉질한다.

• 당신이 사람들을 人間味있게 대접하면 그 사람들도 人間답게 굴며 일도 더 잘할 것이다.

• 世界의 平和를 유지해야 한다는 使命感에 차극받아 우리는 일하고 있다.

• 에너지는 어느 곳에서나 널리 꼭 필요한 것이라 그 말이 一般用語가 되었다.

• 에너지가 缺乏, 恐怖, 無知 대신 生產性, 安全, 教育, 풍요한 生活을 增進시키고 있는事實을 모든 男女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

• 에너지의 開發이 生產性의 向上, 生活의 改善, 또 世界平和의 確保에 중요한 役割을 하는 것을 굳게 믿는다.

• 더 많이 生產하고 좀 더 標準化를 促進하면 그만큼 原價가 떨어지고 GNP의 擴大를 초래한다. 더 真값으로 더 많은 物量을 더 많은 사람에게 供給하는 것이 「生產性」인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의 導入이 필요하다.

• 資本主義는 公的과 私的面의 長點을 모두 結合시키는 制度이기 때문에 이를 믿는다. 資本主義는 問題를 다루는 方法이 폭 幅이 넓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面에 깊은 關係가 있다.

• 資本主義는 經濟에 局限된 体制가 아니고 產業界, 經濟界, 社交界……等等을 網羅한 Leadership의 시스템이다.

• 무슨 일이든 成事 시켜서 가장 많은 것을 얻자면 個人과 政府를 다 같이 動員시켜 政府와 더불어 事業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이는 政府가 악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            ×

#### 追 伸

IEC 서울執行理事會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月 13日 부터 19일까지 韓國을 訪問하신 Cisler先生이 또 다시 韓國電力公社 韓鳳洙 社長의 招請으로 韓國電氣 100年紀念 國際 심포지움에 同參하여 特別講演을 하기 위해 10月 29日 來韓하셨다.

今年 10月 8日 90回의 生辰을 맞이하신 老齡의先生이 太平洋橫斷의 遠路를 不拘하고 우리 의 電氣100周年 紀念行事를 빛내주기 위해 來往하신 것은 우리 電力界의 큰 慶事라 하겠다.

電氣 100周年紀念 國際심포지움 開會式典에서 異彩롭게도 今世紀의 電力界의 巨星이신 Cisler先生이 特別講演을 해주시는 일은 참으로 감개무량함이 있다. 특히 原子力의 平和的利用에 관해 생애를 바치신先生이 韓國의 에너지 장래는 플로토늄 開發에 걸려 있다고 力說하신 바 있는데, 이번에 講演하는 内容은 產業經濟의 成長要因을 中心하여 다음과 같은 題目이다.

#### 『에너지, 電氣와 經濟發展』

電氣 100周年紀念 國際行事를 舉行하는 機會에 最長老 最高 에너지權威者 Cisler先生의 生生한 肉聲을 직접 듣게 된 것을 참으로 同慶하여 마지 않는다.